

무인입춘축성가(戊寅立春祝聖歌)¹⁾

이광사(李匡師, 1705~1777)

[1]²⁾

턴디(天地)라 삼기시고 부모(父母)라 나흐시나
주근것 사로심은 님³⁾ 밋기 뉘헝실고
후목(朽木)의 곱히 꺾고 고골(枯骨)의 슬이 난디
삼년(三年)이 다니옵고 스년(四年)에 미쳐세라
구밀죽(粥) 소곰 반찬(飯饌)
추환(芻豢)도군 즈업슬제
빅번(百番) 밋즌 헌뵈오시 금슈(錦繡)도곤 더똥습제
변토(邊土)헝나 참닐(慘烈)헝들
극낙세계(極樂世界)만 홀가
상우방풍(上雨旁風) 토옥둥(土屋中)이
광하옥실(廣廈燠室) 뽕스올네
분골쇄신(粉骨碎身)헝들
만일은(萬一恩) 갑흐리고
엄동(嚴冬)이 다 진(盡)헝고
무인립춘(戊寅立春)⁴⁾ 드오리라

천지가 만드시고 부모님이 낳으시나
죽은 것 살리심은 임 밖에 뉘 하실까.
마른 나무 꽃이 피고 썩은 뼈에 살이 나니
삼 년이 다 지나고 사 년에 미쳤구나.
귀리죽에 소곰 반찬
잘 차려진 음식보다 즐거울 제
백번 기운 헌 베옷이 비단보다 더 좋을세.
외딴 변방 땅이 비참하고 혹독한들
극락세계만 못하겠나.
비 새고 바람이 들이치는 흙집 안이
넓고도 따뜻한 방 부럽지 아니하니
뼈와 몸 부수어 가루 된들
성은의 만분의 일이나마 갚을런가.
추운 겨울 다 지나고
무인년 입춘이 돌아오네.

[2]

현익(玄默)이라 토요성(招搖星)이
동북방(東北方)의 고든 말이⁵⁾
음곡(陰谷)의느 난눌(煖律)불고
삼양(三陽)이느 회택(回泰)⁶⁾헝니

현익이라 북쪽의 초요성이
동북방으로 자리를 바꾸었으니
그늘진 계곡에는 따뜻한 바람불고
정월 되어 만물이 소통하니

- 1) 정치가이자 서예가인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는 윤지(尹志)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나주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1755년에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 제목은 '무인년 입춘에 임금의 덕을 칭송'한다는 의미임.
- 2) 이 작품의 내용 구분은 '남정희, 무인입춘축성가에 나타난 유배체험 형상화의 이면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32집, 2015)에 따른 것임.
- 3) 영조 임금을 가리킴.
- 4) 영조 34년(1758)의 입춘. 작자 이광사가 부령으로 유배된 지 4년 째 되는 해로 이 작품이 창작된 때.
- 5) '현익'은 옛날 중국의 간지로 임(任)에 해당하며 북쪽을 상징함. '초요성'은 북두칠성의 자루 끝에 있는 별. '곧다'는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으로 계절이 바뀌어 별자리가 바뀌었다는 것.
- 6) 주역(周易)에서 11월은 처음으로 생긴 일양(一陽)으로 복괘(復卦)가 되고, 12월에는 이양이 생겨나서 임괘(臨卦)가 되고, 정월에는 삼양이 생겨서 태괘(泰卦)가 된다고 하는데, 삼양 때는 아래로 내려온 무거운 땅의 기운과 위로 올라간 가벼운 하늘의 기운이 만나 교감(交感)하고 교통(交通)하여 만물이 소통된다고 함.

טיפ툼(蟄蟲)이 다 동(動)하고 석은 풀의 비티예고
동식(動植) 합생물(含生物)이 다 쓸어 생의(生意)있네
화기(和氣)라 상풍(祥風)이라
아니간디 노야 업너
양춘(陽春) 덕택야(德澤耶)
어의춤도 어의출사
우리님 인덕(仁德)의는 그려도 못미치리
턴디(天地) 너르와도 성덕(聖德)의는 좁스오리
일월(日月)이 붉디마는
왕명(王明)보다 어두우리
요순(堯舜)의 호생덕(好生德)¹⁾도
박시제중(博施濟衆) 병(病)되시데
신우(神禹)의 성교(聖敎)로도
각즈위심(各自爲心) 우르시고²⁾
은탕(殷湯)의 그물품도 일면(一面)은 그즈잇고³⁾
주무왕(周武王) 무성공(武成功)⁴⁾도
진미(盡美)코 미진선(未盡善)테
우리님 홍공위열(鴻功偉烈)
만고(萬古)의 뉘비홀네
턴디간(天地間) 만만물(萬萬物)을 물물(物物)히 헤여흐니
외외탕탕(巍巍蕩蕩) 흐온 덕(德)에 망블(彷彿)흐것 전(專)혀 업시
구둥문(九重門) 달(闌)의는 춘첩즈(春帖字)야⁵⁾ 성컨마는
북식(北塞) 죄루신(罪隸臣)도
송축(頌祝)이나 흐오리라

땅속 벌레 움직이고 썩은 풀이 비치었고
동물 식물 모든 생물 다 쓸어 살아나네.
따뜻한 기운과 상서로운 바람이
아니 간데 다시 없네.
따뜻한 햇별이 쪼어와도
여전히 차갑기도 차갑기만 하구나.
우리 임 인덕에는 그래도 못 미치리.
천지가 넓다 해도 성덕에는 좁사오리.
해와 달이 밝지마는
우리 임 총명보다는 어두우리.
살기기를 좋아하셔 은덕 베푼 요순 임금
사랑으로 못 사람을 구제하다 병이 되고
우임금도 지성으로 가르쳤어도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였으니 우셨으며
은 탕왕도 한쪽으로만 그물을 푸셨으며
주 무왕이 군사로 성공함도
아름다움이 다하여도 착한 일은 아니러니
우리 임 큰 공로와 위대한 공적이야
만고에서 뉘 비할까
천지간에 온갖 일들 일마다 헤아리니
놓고 크고 넓은 덕과 같은 것이 전혀 없네.
궁궐 문의 문짝마다 춘첩자야 가득하지만
북쪽의 변방에서 죄 많은 신하지만
송축이라 하오리다.

[3]

턴황시(天皇氏) 만팔천세(萬八千歲)
디황시(地皇氏) 만팔천세(萬八千歲)⁶⁾
우리님 녁년슈(歷年數)는

천황씨가 만팔천 년 다스리고
지황씨가 만팔천 년 다스리나
우리 임 여러 해를 다스림은

1) 사형에 처할 죄인을 특사하여 살려 주는 제왕의 덕.

2) '신우'는 하(禹) 왕조를 세운 우임금. 우임금의 후손이 걸왕(桀王)이 정치를 포악하게 하여 상(은)나라 탕왕에 멸망하게 된 일을 가리킴.

3) '은탕'은 중국 고대 상(은)나라의 시조인 탕왕. 어짐이 깊고 자비로운 군주로, 그물에 걸린 새를 놓아주어 그 덕은 금수에 게까지 미쳤다는 평을 얻었음.

4)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공격하며 멸망시켰던 일.

5) 입춘날 대궐의 안기둥에 장식으로 써 붙이는 글귀.

6) 중국 고대 전설에 나오는 세 명의 임금(三皇)인 천황씨(天皇氏), 지황씨(地皇氏), 인황씨(人皇氏). 각각 만팔천 년씩 나라를 다스렸다고 함.

턴황디황(天皇地皇) 겸(兼)호쇼서
즈회(子會)에 하늘열고 툽회(丑會)에 따히 열시
십이회(十二會) 춘온나춘 일원(一元)이 인다호데¹⁾
이 턴디(天地) 술아디고 후턴디(後天地) 개벽(開闢)도록²⁾
그째 쫓 우리님은
향국무강(享國無疆) 호오쇼서
삼만년(三萬年)의 혼번위는
요디반도(瑤池蟠桃) 천번(千番)뛰고
삼천년(三千年) 상던(桑田)되는
동해수(東海水) 만번변(萬番變)코
슈미산(須彌山)³⁾ 의틸(蟻蛭)긋고
황하수(黃河水)는 실늣갖고
듀세불(住世佛)⁴⁾ 천(千)이 석고
당싱선(長生仙)⁵⁾ 만(萬)을 못늣
우리님 다시 보고
안락태평(安樂太平) 호오쇼서

천황씨 지황씨를 겸하소서.
자회에 하늘 열리고 축회에 땅이 열려
십이회 모두 차면 일원이 된다는데
이 세상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도록
그 끝에서 우리 임은
끝없이 이 나라를 다스리소서.
삼만 년에 한 번 피는
요지의 복숭아 천 번이나 피도록에
삼천 년마다 뽕밭 되는
동해의 물이 만 번이나 변하도록
수미산이 개미독으로 내려 앉고
황화수가 실처럼 가늘게 마르도록
미륵부처 천 분이나 녹아서 없어지도록
불로장생 신선이 만 명이나 묻히도록
우리 임 다시 보려니
안락하고 태평한 세상을 누리소서.

[4]

바다회 물결자고
스변(四邊)의 봉화(烽火) 긋고⁶⁾
오곡(五穀)이야 백곡(百穀)이야 흙이런가 티끌인가⁷⁾
집집이 도주 의돈(陶朱猗頓)
사람마다 팽조 악전(彭祖 偃全)⁸⁾
강구(康衢) 연월(煙月)의 격양가(擊壤歌)⁹⁾도 하도할사
성즈(聖子) 신손(神孫)이
만억세지(萬億世之) 무궁(無窮)일식
북원(北苑)의 닌(麟)이 놀고 아각(阿閣)의 봉(鳳) 짓들고¹⁰⁾

바다에 물결 잣고
네 국경에 봉화가 그쳤으니
오곡이야 백곡이야 흙이런가 티끌인가.
집집마다 도주와 의돈이고
사람마다 팽조와 악전이라.
강구연월에 격양가도 많고 많다.
모두가 성인 아들 신의 손자
만억 년이 되도록 무궁하네.
북원에 기린 놀고 누각에 봉 짓드니

1) 중국 복송의 학자 소옹(邵雍)은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에서는 천지가 생성, 소멸하는 주기를 1원(元)으로 보고, 1원을 다시 12회(會)로 나누어 12간지(干支)를 배치였고, 자회(子會)에 하늘, 축회(丑會)에 땅, 인회(寅會)에 사람이 각각 생겨났다고 하였음. 1회는 18000년임.

2) 시운(時運)의 변화에 따라 어두운 선천(先天) 세계는 끝나고, 후천(後天)의 밝은 문명 세계가 돌아온다는 사상.

3) 불교에서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상상의 산.

4) 석가모니불이 열반한 뒤 56억 7천만년이 되는 때에 다시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는 부처님.

5) 오래도록 사는 장생술을 가진 신선.

6) 전란이 일어나지 않음.

7) 오곡백과가 흙이나 티끌처럼 많다는 것.

8) '도주'는 춘추시대의 월(越)나라의 공신으로 벼슬을 내어놓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함. '의돈'은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대부 호(大富豪). '팽조'는 800년이나 살았다고 하는 중국 전설 속의 인물. '악전'은 중국 전설 속의 신선.

9) '강구연월'은 태평한 시대의 큰 길거리의 평화로운 풍경. '격양가'는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기려 불렀다는 노래.

팔도(八道)의 올닌 글월 녕어(囹圄)가 다 뒤흔고
녕대(靈臺)의 알윈 말이 남극성(南極星)¹⁾ 반달 만히
하늘의 오색(五色)빛히 구름인가 기운인가
미양 당성(長星)²⁾ 어리어서 거들줄을 모르늬다
어화 이 세계(世界)는 직적(載籍)의도 못듯스왜
턴하(天下)의 득빅(竹帛)³⁾으로 다어드리 기록하며
턴하(天下)의 금석(金石)으로 다어드리 사기랸던
흐물며 죄루신(罪纍臣)이
감(敢)히 유양(揄揚) 헐리쓰너

[5]

견마(犬馬)의 우준(愚蠢)흠도
년주(戀主)홀줄 절노 알고
규곽(葵藿)의 무지(無知)흠도 향일(向日)홀줄 뉘시긴동
곤룡(昆蟲) 초목(草木)인들
나는 정성(精誠) 금(禁)헐리쇠
정성(精誠)이 감발(感發)하야 몽둥(夢中)의 핏득되세
금난(金欄) 옥계상(玉階上)의
홍약(紅藥)은 번득이고
어탐(御榻) 향안전(香案前)의 던연(篆烟)은 어리엿넌
당낙(長樂)의 복소리느 곳밧기 구울면서⁴⁾
금호(金壺)의난 누슈(漏水)는 드드리 던(傳)헐늬되⁵⁾
룡안(龍顏)을 바라올듯 옥음(玉音)을 듯즈올 듯
고아(孤兒) 열즈(孽子)조츠 부모(父母) 얼굴 침뵈온 듯
궁곡(窮谷) 폐질인(癡疾人)이 일월(日月)비출 우러온 듯
즐업기하 극(極)헐니 감누(感淚)만 종횡(縱橫)헐니
일만번(一萬番) 죽스온들 여한(餘恨)이 이실게고

팔도에서 글 올리니 감옥이 다 비었다.
영대에서 아뢰니 남극성이 반달 만해
하늘의 오색빛이 구름인가 기운인가.
매양 큰 별이 어리어서 갇힐 줄을 모르도다.
어화, 이런 세계 책에서도 듣지 못해.
천하의 죽백으로 다 어찌 기록하며
천하의 금석으로 다 어찌 새길 건가.
하물며 죄 많은 신하 되어
감히 임의 높은 덕을 칭송하였네,

개와 말이 어리석어도
주인을 사랑할 줄 절로 알고
해바라기 무지해도 해 향하기 뉘 시켰나.
곤충이나 초목인들 그러하니
임 향한 내 정성 어찌 금하리.
정성에 감동하여 꿈속에서 퍼뜩 모셔
대궐 안의 난간과 섬돌에서
작약이 가득히 피어 있고
임 계신 향안전에 향로 연기 어리엿네.
장락궁의 종소리에 꽃 밖으로 사라져도
금 향아리 새는 물을 담을 이가 전하는데
용안을 바라볼 듯 옥음을 듣자올 듯
고아나 서자가 부모 얼굴 처음 본 듯
궁벽한 곳 병든 이가 해와 달을 우러른 듯
즐겁기가 그지없어 감사 눈물 쏟아지니
일만번 죽사온들 여한이 있을 건가.

10) '복원'은 창덕궁 후원. '기린'은 성인이 이 세상에 나기 전에 나타난다는 상상의 동물로 수놓은 기 암늬은 인이라 함.

1) '영대'는 하늘의 천문을 보고 앞으로의 조짐을 알아내기 위해 만든 궁궐 안의 대. '남극성'은 남극 부근의 하늘에 있는 별로 이 별을 보면 오래 산다고 함.

2) 혜성.

3) 역사를 기록한 책. 예전에 대나무를 엮어 기록했던 것에서 유래함.

4) 당나라 시인 전기(錢起)의 '증궐하배사인(贈闕下裴舍人)'의 한 구절을 들어 작자가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할 구절. 長樂鐘聲花外盡(장락종성화외진) 龍池柳色雨中深(용지류색우중심) 陽和不散窮途恨(양화부산궁도한) 霄漢長懷捧日心(소한장회봉일심). 장락궁의 종소리 꽃 밖으로 사라지고, 용지 연못 버들색은 빗속에 짙어지네. 따뜻한 햇살도 궁궐한 나의 한을 흘지 못하는 데, 하늘의 은하수는 내 충성심을 길이 품는구나.

5)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의 '오서곡(烏棲曲)'의 한 구절을 들어 임금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한 구절. 銀箭金壺漏水多(은전금호누수다) 起看秋月墜江波(기간추월추강파) 東方漸高奈樂何(동방점고내락하). 은 바늘 세운 금 향아리에선 물 많이 새고 있고, 일어나 바라보면 가을 달 물결 속에 빠져 있었네. 동녘이 어느새 밝아 왔으니 못다한 즐거움 어이 했을까.

[6]

오경(五更)의 목마(牧馬)소리 잠든날 켜오거이
썩틴 후(後)의 슈간(袖間)의 어로향(御爐香)¹⁾이 그즈잇너
벼개우 물근 눈물 천향(千行)이 만향(萬行)일식
싱너(生來)에 락틴 원(願)을 몽똥(夢中)의 일온거시
이 몸이 일식(一息) 미민전(未泯前)은
일야송축(日夜頌祝) 호오리라

오경에 말 울음이 잠든 나를 깨우거니
잠 깨니 소매에서 임의 향기 남아 있네.
벼개 위의 맑은 눈물 천번 만번 흘렸구나.
태어난 뒤 맺힌 소원 꿈속에서 이룬 것이
이 몸이 숨이라도 끊어지지 않았다면
밤낮으로 송축을 하오리라.

1) 임금이 쓰던 향로에 피우는 향.